

매장수 1위 올영, 온라인도 강화...O2O 키우고 물류혁신

(올리브영)

매장의 접근성, 온라인의 편의성 결합 주소지 인근매장서 배송해 시간단축 분산됐던 물류시설 통합해 효율 ↑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과 온라인몰의 편의성을 결합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공격적인 매장확장으로 H&B 스토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도 함께 강화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시간 내 배송 '오늘드림' 전국 확대 올리브영은 온라인·모바일 앱 구매 시 상품을 3시간 내에 고객이 있는 곳까지 즉시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오는 3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가 아닌 주소지 인근매장에서 포장·배송(Ship from Store)하는 방식으로, 전국 매장망과 연계해 배송 시간을 단축 시킨 것이 강점이다.

'오늘드림'은 2018년 12월 론칭 당시



올리브영 직원이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태블릿 PC로 피부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 올리브

서울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빠른 배송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1년 만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6대 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세종시, 제주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올리브영은 오는 3월까지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넓힐 계획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일 평균 주문 건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론칭 당시와 비교해 10배 가량 주문이 늘었으며, 즉시 배송이 가능한 상품 수도 초기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물류 혁신 가속화

지난해 11월 올리브영은 경기도 용인에 수도권 매장 온라인몰 물류를 담당하는 통합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기존 경기도 군포 복합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한 것으로, 4개동에 분산됐던 물류 시설을 지상 4층 규모(면적은 7만 2000㎡)의 단일 건물로 통합해 효율을 높였다.

올리브영은 센터 대형화를 통한 공간 효율화와 물류 시스템 정교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는 기존보다 1.5배 이상 큰 규모로 각종 마다 화물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적재 작업이 용이하게 했고, 층고를 높여 적재 효율이 25% 이상 개선됐다. 상품의 입고, 적재, 출고 과정 최적화를 위해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도 고도화했다.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760여

개의 올리브영 수도권 매장 물류와 온라인몰 주문 상품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종시 중부 복합물류센터가 담당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오늘드림과 '수도권 통합 물류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 시너지를 통한 배송 서비스 혁신에 우선 중점을 두고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며 "오프라인 채널 운영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온라인 사업과의 시너지를 본격화하며 '옴니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계허문 소객 소통으로 쇼핑편의 ↑



올리브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조감도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S25, 한해동안 ATM 거래액 11조 돌파

ATM 이용 6580만건

편의점에서 ATM(CD)을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GS25는 이달 20일부터 SC제일은행 고객이 GS25에서 운영하는 ATM을 통해 현금 인출 거래를 할 때(영업 시간 내)출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SC제일은행과의 제휴로 GS25에서 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을 포함한 총 8곳으로 늘었다.

GS25는 총 점포 중 약 85% 수준에 해당하는 전국 1만1800여 점포에서 ATM을 운영 중이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으로 작년 한해 동안 입출금 및 이체 거래 금액 실적은 총 6580만건을 돌파했고 연간 거래 금액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매일 300억원 이상의 금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중수 GS리테일 MD본부장(오른쪽)과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액이 GS25의 ATM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

GS25는 전국망의 점포를 통해 '우리 동네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2017년부터 주요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ATM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왔다.

/신원선 기자

공영쇼핑, 식품명인들 모여 전통식품 선봬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상품 소개

공영쇼핑은 설을 앞둔 오는 17일 '식품명인' 상품을 6시간 동안 편성하는 '명인대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인대전은 전통식품의 계승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상품을 집중 소개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공영쇼핑이 매년 명절마다 진행하고 있는 '식품명인' 특집으로 공영쇼핑은 전통 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식품명인 상품을 발굴해 왔다.

17일 특집전에선 최명희 명인의 '안동 제비원 메주'(오전 10시 30분), 강봉

석 명인의 '명인 견과바'(오전 11시 30분), 김순자 명인의 '김순자 김치'(오후 12시 40분), 서분례 명인의 '서일농원 청국장'(오후 1시 40분), 김규훈 명인의 '명인 한과 세트'(오후 2시 40분), 김영근 명인의 '도토리묵 세트'(오후 3시 40분)가 방송된다. '명인 견과바'와 '명인 한과 세트'는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패키지 구성했다. '서분례 청국장'은 자동주문 시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명인대전의 상품 모두 모바일 결제 시 5% 즉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5만원 이상 상품은 농협카드 결제 시 5% 추가 청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수소경제, 충전소·국제표준 등 아직 미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세미나 노용래 "미래먹거리 위한 중요 과제"

지난 1년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많은 성과를 도출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국회 수소경제포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최로, 이원욱·노용래 국회의원 및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오는 17일 1주년을 맞는다.

노용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수소차의 경우, 작년에 세계 판매량의



1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60%를 차지했다. 또한 며칠전에는 수소경제육성 관련 법이 통과돼 큰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직 수소충전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 수소경제에 있어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라 노력해야 한다. 정책적·입법적으로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은 "수소경제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 전기차의 연간 보급 실적이 세계 최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발전소도 2018년에 343MW에서 지난해 464MW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라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수소충전소, 즉 인프라 구축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 2020년에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조기 확보, 홍보 통한 수용성 개선, 국제협력 등 3가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에 있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흥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수소경제를 추진한 뒤로 작년에 처음 국제 표준을 한 건 제정했다.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표준제정은 산업체들이 해줘야 한다. 다만 산업체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제정을 할 여력이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이다. 현재 표준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귀뚜라미, 친환경 보일러 사면 온수매트 반값

귀뚜라미는 환경부인증 친환경 보일러 구매 시 온돌 온수매트(EM7 시리즈 2종)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월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가까운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거꾸로 N EW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

보일러와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열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등 높은 수준의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다.

행사 기간 동안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고객에게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함께 프리미엄 온돌 온수매트 EM71(싱글), EM73(퀵) 2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



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정부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여부는 보일러 구매 시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